도선 국사 풍수 사상 조명하다

영암 도갑사 '도선 국사 문화예술제'

10월 12~13일 경내서 다례재, 야단법석 공연
도선 국사 풍수지리설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도



도선국사 풍수사상 재조명 학술세미나에서 참석대중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선 국사 탄신 1197년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영암 도갑사(주지 수관 스님)는 10월 12~13일 양일간 경내에서 도선 국사 탄신 1197주년을 맞아 '제19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경내 대웅보전 앞 특설무대에서 다례재를 시작으로 행사의 막이 올랐다. 다례재와 법요식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 도갑사 주지 수관 스님, 중앙종회의원 향문 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들과 베드로 천주교 영암성당 신부, 우승희 영암군수, 박종대 영암군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같은 날 경내 심검당에서는 도선 국사의 풍수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최원석 경상국립대 교수 '깨달음과 보살핌의 산수 미악-도겐의 산수성불설과 도선의 산천비보설' △김지민 목포대 명예교수 '도갑사 도선국사 기념 공간 조성 기본 계획안'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한종구 청운대 교수, 서동천 목포대 교수, 최정미 건축문화연구소 한건 대표의 토론과 질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와 환상매직쇼를 선보이는 '숲속 콘서트' 학생밴드, 오케스트라의 '야단법석 공연',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힐링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도갑사 주지 수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만의 소중한 자산을 찾고 이를 빛내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축제를 통해 도선 국사의 깊은 가르침과 영암의 풍부한 문화유산이 널리 알려지고 우리의 자부심이 다시 한번 빛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처음 '도선국사 예술제'를 시작해 그동안 도선 국사의 많은 업적과 가르침을 영암군민과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수고해 주신 수관 스님과 지원을 해주신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군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 보림사, 지장전·산신각 점안식

10월 12일 경내 앞마당서
대숲길 쉼 음악회도 함께



보림사가 지장전, 산신각을 낙성하고 점안식을 봉행했다.

정읍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는 10월 12일 경내 앞마당에서 '보림사 아란야 축제'를 열었다.〈사진〉 행사는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법회와 지장전·산신각 낙성, 점안법회에 이어 산사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은 "지장전 불사는 구화산에서 모셔온 사리 4과를 보림사에 봉헌하고 싶다는 신도의 원력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이번 불사는 오롯이 보림사 신도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회향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법만 스님은 "종진 스님이 부임한 후 보림사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불사 회향을 맞아 각자 자리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안 쌍봉사, '어르신 섬김 孝잔치'

큰법당 건립 10주년 기념
지역 어르신 150명 초청



진안 쌍봉사가 지역 어르신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는 10월 15일 경내 마당에서 쌍봉사 큰법당 건립 10주년을 맞아 지역 어르신 150명을 초청, '어르신 섬김 효잔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자비나눔에는 쌍봉사 신도회, 쌍봉사 섬김봉사단, 반찬봉사단이 동참했다.

쌍봉 주지 보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큰법당을 세운 것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며 "거창한 법회보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잔치를 열어드리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미선 쌍봉사 신도회장은 "오늘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어르신들을 모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죽을 위기 생명 구하는 게 방생"

쌍계사, 방생법회 봉행
꿩 300마리 날려 보내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가 10월 15일 경내 일원에서 꿩 300마리를 방생하는 '제39회 본말사 연합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방생법회는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 본말사 연합회장 이암 스님,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중국 동화선사 방장 만행 스님 등 쌍계사 본말사스님, 대중스님들과 하승철 하동군수, 강대선 하동군의회 의장, 쌍계사 선다회, 합창단 등 1500여 명이 동참했다.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은 "열반하신 고산 대종사의 뜻에 따라 봉행하는 연합 방생법회는 그간 해안에 위치한 사찰 특성상 어류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날짐승인 꿩으로 방생을 하게됐다"며 "죽을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방생이다. 오늘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쌍계사 본말사 연합회장 이암 스님은 "오늘 우리가 방생한 조류를 통해 지역, 남북, 국가간 갈등을 넘어 소통과 화합, 평화와 공존의 장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는 하승철 하동군수에게 '하동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해 법회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법회에 앞서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과 동화선사 방장 만행 스님은 한중 양국 불교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공주 구룡사, 꽃과 음악으로 물들다

산사음악회 10월 12일 개최
10월 1~27일 구절초 꽃축제



공주 구룡사(주지 진명 스님)가 10월 12일 경내 극락보전 앞에서 산사음악회를 열었다.〈사진〉 이번 산사음악회는 구룡사 구절초꽃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강우식)가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구절초 꽃 축제' 기간에 이뤄졌다.

구룡사는 전국 최대 구절초 군락지다. 주지 진명 스님은 가을 구절초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포교의 한 방편이라고 여기고 15년째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박은주 진행자의 사회로 펼쳐진 산사음악회는 구룡사 풍물단의 개회공연에 이어 법회를 봉행했다.

구룡사 주지 진명 스님은 "많은 사람이 가을 구절초 꽃 축제를 기대하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구절초 꽃축제가 공주 관광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추진위원회는 상생과 발전을 위해 토종꿀, 밤, 구절초 조청, 꽃차 등 지역 특산물을 전시·판매했다. 수익금 일부는 공주 신풍초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구룡사 주지 진명 스님,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금오 스님, 마곡사 선원장 혜경 스님, 지장사 주지 설몽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박수현 국회의원,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 박인규 공주시 문화복지국장, 구본길 공주시의회 의원 등 지역 단체장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세종 영평사, 落火축제로 '불멍' 시간

10월 11~12일 경내 일원서
"일상서 어려운 일 불사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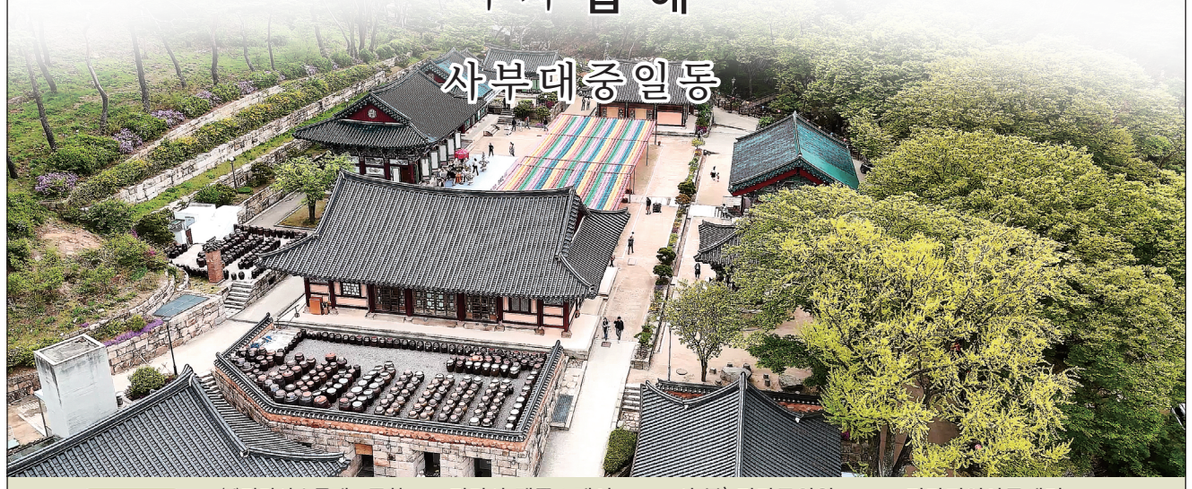


작열하는 불꽃으로 악업을 소멸하고 복을 가져오는 낙화축제가 마련됐다.

세종 영평사(주지 환성 스님)와 불교낙화법보존회(이사 원행 스님)는 10월 11~12일 양일간 영평사 경내 일원에서 전통방식으로 낙화법을 선보였다.〈사진〉 벌써 8번째를 맞은 낙화법 축제는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아 경내는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붐볐다.

원행 스님은 점화식에서 "낙화법은 본래 불교의식이 민간으로 전해진 것이다"며 "오늘 떨어지는 낙화에 '불멍'(불을 멍하니 바라본다) 하시고 좋은 기운 가져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성 스님은 "일상에서 어렵고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 오늘 이 낙화와 함께 모두 불살라 버리고, 환한 마음만 가지고 가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주 계호
주지 법해
사부대중일동

부설기관
▪ ㈜진관사수륙재보존회 ▪ 진관사 템플스테이 ▪ 사.복) 진관무위원 ▪ 진관지역아동센터
▪ 코끼리 유치원 ▪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 불광노인복지관 ▪ 구파발어린이집
▪ 진관사 불교대학. 대학원 ▪ 한문화체험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전화 02)359-8410 www.jinkwansa.org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회주 명성
주지 은광
운문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사리암 054-372-8811 www.unmunsa.or.kr